

The Impact of Mobile Device Usage Skills on Life 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Young-Eun Ja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North Korean defectors'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on life satisfaction and to verify whether self-efficacy mediates this relationship. To this end, among the data on the digital information gap conducted in 2022, responses from 607 people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25.0 and AMOS 24.0, with the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self-efficacy as the parameter.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improving the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was found to increase self-efficacy. North Korean defectors'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s a result of check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of self-efficacy through bootstrapping, i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such as educ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defectors'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were suggested.

▶ **Key words:** Life Satisfaction, Mobile Device Usage Skills, Self_Efficacy, Digital information gap, North Korean Defectors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자료 중 607명의 응답을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은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SPSS 25.0, AMOS 24.0을 활용해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의 향상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갖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에 대해 제안하였다.

▶ **주제어:** 삶의 만족도,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 자기효능감, 디지털 정보 격차, 북한이탈주민

- First Author: Young-Eun Jang, Corresponding Author: Young-Eun Jang
- *Young-Eun Jang (qkqh0120@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24. 09. 30, Revised: 2024. 11. 19, Accepted: 2024. 11. 20.

I. Introduction

한국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모바일 기기 보급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계층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모바일기기의 활용 능력은 그들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에서 벗어나 한국의 개방적이고 첨단화된 사회로 이주하여 정보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모바일기기를 통한 정보 접근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3].

그러나 단순히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기술적 능력을 실제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배우고 활용하는데 더욱 적극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1][5][6].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모바일기기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정보 검색, 교육 자료 접근, 업무 관리, 대인관계 형성의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2].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성과 무한한 의사소통 가능성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는 남한의 정보화된 사회 구조에 신속히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5]. 이 과정에서 모바일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사회적 통합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6].

반두라(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의 정도라고 정의한다[2]. 이는 개인이 새로운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도전적인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바일기

기 활용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모바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수한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에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교육 및 취업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4]. 이는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7].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모바일기기를 활용 능력이 높을 경우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3]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효능감이 향상[5]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향상된 효능감은 긍정적인 생활 태도의 변화를 경험[4]하면서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 즉, 자기효능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여, 모바일기기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디지털정보화수준[1],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2], 디지털 기술[5], 모바일 활용[7], 미디어 활용[10]의 변수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편적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기효능감의 매개 기능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이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적응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여러 자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이고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Literature Review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defectors)이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위키백과). 이들의 삶의 방식을 다른 문화권에 적응시키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모바일기기 활용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란 네트워크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모바일기기 활용은 이들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7]. 선행연구[2][3]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은 정보 이동성을 높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작용하며,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경제적, 교육적 기회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확대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업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기초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1]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이들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모바일기기 활용이 한국 사회의 정보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3]. 또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설명한다[5].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라는 효능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도 관심[4] 갖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여 삶의 질적인 향상에 영향[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데 자기효능감의 고유한 특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작동[7]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모바일기기 활용은 자아효능감과 영향 관계에 있으며, 자아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Research methods

3.1 Data Collection

분석 자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11] 중 2022년 8월 1일 현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하 나원 퇴소자 기준) 중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607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을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SPSS 25.0, AMOS 25.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했다.

3.2 Research Model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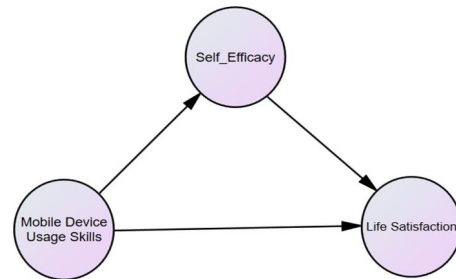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3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Table 1과 같다.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은 모바일 기기를 스스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 서명 참여, 보안설정, 방문기록 삭제, 공개범위 설정, 임시조치 방법, 신고방법 가능도를 묻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alpha=.937$). 자기효능감은 스마트 기기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효능감을 배우는 자신감, 활용의 자신감, 사용법 빠르게 습득, 더 많은 이용 동기로 구성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alpha=.891$).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현재 삶의 이상과 일치성, 삶의 조건의 우수성, 만족도, 원하는 것들 취득, 변화 필요도로 구성된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alpha=.842$).

Table 1. Measuring tool

Variable	Concept definition	Reference
Mobile Device Usage Skills (MDUS)	The ability to use mobile devices in everyday life	Likert scale 4 $\alpha=.937$
Self_Efficacy (SE)	Subjective confidence in comprehensiv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kert scale 4 $\alpha=.891$
Life Satisfaction (LS)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life as perceiv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daily lives	Likert scale 4 $\alpha=.842$

3.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은 남성 156명(25.7%), 여성 451명(74.3%)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20세 미만 18명(3%), 20세 이상~29세 미만은 79명(13%), 30세 이상~39세 미만은 151명(24.9%), 40세 이상~49세 미만 169명(27.8%), 50세 이상~59세 미만 144명(23.7%), 60세 이상~69세 미만 37명(6.1%), 60세 이상 9명(1.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339명(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117명(19.2%), 초등학교 졸업 77명(11.2%) 순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학교 졸업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시기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369명(60.8%),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7명(34.1%), 2000년 이전 31명(5.1%)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탈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대부분 월 300만원 미만으로,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간은 200만원 이상~299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Gender (n=607)	Male	156	25.7
	Female	451	74.3
Age (n=607)	Less than 20 years	18	3.0
	20 years over ~ 29 years	79	13.0
	30 years over ~ 39 years	151	24.9
	40 years over ~ 49 years	169	27.8
	50 years over ~ 59 years	144	23.7
	60 years over ~ 69 years	37	6.1
	More than 60 years	9	1.5
Educational background (n=607)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77	11.2
	Middle school graduation	339	55.8
	High school graduation	117	19.2
	College graduation	59	9.8
	Etc	25	4.0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n=607)	Before the 2000s	31	5.1
	2000 to 2009	369	60.8
	2010 to 2019	207	34.1

Monthly Incom (n=607)	Less than 1,000,000 KRW	82	13.5
	1,000,000 KRW~ 1,990,000 KRW	137	22.6
	2,000,000 KRW~ 2,990,000 KRW	201	33.1
	3,000,000 KRW~ 3,990,000 KRW	105	17.3
	4,000,000 KRW~ 4,990,000 KRW	82	13.5

IV. Analysis results

4.1 Measurement model analysis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이론적 개념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성분 분석(PCA)으로 동일방법편의 검증한 결과, 성분은 43.28%으로 50%를 초과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화계수 값이 .678부터 .900으로 나타났고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두 모든 변수가 단일요인으로 나타나 관측 변수를 잠재 변수로 구성하는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측정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χ^2 값은 422.782(df=101),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chi^2(Cmin)$ 값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모형과 자료의 일치성이 낮아져 오류위험이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적합도 자수(CFL, TLI, GFL, NFL, SRMR, RMSEA)를 함께 고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른 적합도 자수도 함께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CFI=.950, TLI=.941, GFI=.935, NFI=.936으로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SRMR=.051, RMSEA=.073으로 수렴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678~.887이었으며, 구성 개념별 개념 신뢰도(C.R)는 0.7이상 이었다.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0.5이상으로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문제가 없었고 분석에 적합하였다고 판단하였다[12].

Table 3. Measurement model analysis (n=607)

Variable		Estimate		S.E	CR	AVE
		B	β			
Mobile Device Usage Skills (MDUS)	MDUS_1	1.000	.821			.691
	MDUS_2	1.057	.839	.043	24.854***	
	MDUS_3	1.163	.849	.046	25.330***	
	MDUS_4	0.999	.818	.042	23.939***	
	MDUS_5	1.167	.881	.044	26.798***	
	MDUS_6	1.026	.769	.047	21.894***	
Self-Efficacy (SE)	SE_1	1.000	.887			.760
	SE_2	1.056	.900	.035	30.553***	
	SE_3	1.027	.831	.038	26.745***	
	SE_4	.849	.678	.044	19.278***	
Life-Satisfaction (LS)	LS_1	1.000	.771			.733
	LS_2	1.011	.725	.059	17.228***	
	LS_3	1.097	.756	.061	17.983***	
	LS_4	1.063	.756	.061	17.479***	
	LS_5	1.023	.735	.069	14.821***	

$\chi^2=422.782(df=101)$, $p=.000$, CFI=.950, TLI=.941, GFI=.935, NFI=.936, SRMR=.051, RMSEA=.073
*** $p<.001$

본 연구에서 제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분석은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 계수 값은 .310~.445의 분포로 나타났고 상관계수 값은 최대 0.7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관계수 제곱 값과 각 척도의 값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제곱 값이 AVE값보다 더 작아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9].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607)

Variable	1	2	3
1.Mobile Device Usage Skills	1		
2.Self_Efficacy	.445***	1	
3.Life Satisfaction	.310***	.417***	1

4.2 Structure model analysis

이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R=3.525, $p\leq 0.001$).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반면,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R=11.508, $p\leq 0.001$).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될 때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R=7.880, $p<0.001$). 이는 북한이탈

주민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가설 2, 가설 3을 지지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n=607)

Path diagram	Estimate		S.E	CR
	B	β		
MDUS \rightarrow LS	.115	.169	.033	3.525***
MDUS \rightarrow SE	.459	.487	.040	11.508***
SE \rightarrow LS	.286	.398	.036	7.880***

*** $p<.001$

4.3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Table 5와 같이 경로 간 영향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분해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363으로 직접효과(.169)와 간접효과(.194)를 동시에 미치고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자기효능감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간접효과 신뢰구간이 133 262로 '0'이 포함되지 않았고 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했다($p<.05$).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 4를 지지할 수 있다.

Table 6.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n=607)

Path diagram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Indirect trust interval
MDUS \rightarrow SE \rightarrow LS	.363	.169	.194	.133 ~ .262*

* $p<.05$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 향상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의 향상은 사회경제적 정보 접근을 촉진하고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유용하게 작용하는 수단이 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0].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스마

트 모바일기기의 보급률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활용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의 향상과 함께 사회문화적 적응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 디지털 접속 환경 개선을 지원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고 성공적 경험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 그리고 활용 교육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서 활력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이끌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5][7].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 긍정적 관계를 주장한 선행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6].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디지털 정보 활용을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정보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모바일기기 활용과 연계하여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 방식의 일상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동기 강화를 위한 보상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의 단계적 디지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교육 방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으로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11]. 한편 이들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을 이유로 체계적인 모바일기기 활용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단계적인 디지털 정보화 사회 교육을 위한 영상방송,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디지털기기를 통한 정보 활용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기기 활용의 영향력에만 집중하여 컴퓨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분야의 변수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기기 활용 관련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im, Y. M.. "A Study on the Mobile Capacity and Util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Expectation toward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ociety & Media, 21(3), 1-32. 2020. DOI: 10.52558/ISM.2020.12.21.3.1
- [2] Lee, H. J., Park, M. K., & Cha, Y. J. "A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Smart Media Skills and Online Economic Participation". 『Multiculture & Peace』, 13(2), 194-207. 2019. DOI : 10.22446/mpisk.2019.13.2.010
- [3] Noh, H., Yoon, S., Jo, H., Van Kleek, M., & Kang, Y. "Starting a New Life after Crossing the Tumen River: How North Korean Defectors Use Digital Technology in Transition. 『In Proceedings of the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26, 2024. DOI: 10.1145/3613904.3642892
- [4]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1997.
- [5] Yoo, N. R., & Jang, S. H. "Digital technology use, technological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North Korean migra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oderated moderation", 『DIGITAL HEALTH』, 32(2), 289-305. 2023. DOI: 10.1177/20552076231171503
- [6] Choi, H. L. & Song, I. U.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246-255. 2020. DOI: 10.5762/KAIS.2020.21.6.246
- [7] Heo, S. M. "Effect of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Relationship Mobile Use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4(9), 2027-2036, 2023. DOI: 10.9728/dcs.2023.24.9.2027
- [8] Smith, A. (2013). 『Smartphone ownership - 2013 U pdate』. Pew Research Center.
- [9] N. H. Hwang, H. S. Kim, K. G. Kim, B. H. Joo, S. H. Hong & J. H. Kim, 『Older Adults and the Digital Divide: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jong, 2020.
- [10] H. Min,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eir Emotional States, Social Media Use, and Life Satisfaction," 『Informatization Policy』, 25(2), 67-83, 2018. DOI: 10.22693/NIAIP.2018.25.2.067
- [11]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2022.
- [12] Bae, B. R. 『Amos 2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g . Seoul: Cheongram. 2014.

Authors



Young-Eun Jang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5. Dr. Jang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14.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lderly welfare, community welfare.